도시근교엔 고령 선생님 도서벽지엔 젊은 선생님

전남 초등 교사들 '연령 불균형' 극심…효율 떨어져

전남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령 불균형이 지역에 따라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근교와 시 단위 지역에는 고령 교사가 많은 반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는 젊은 교사 비율이 높아 교육 효율이 떨어지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2009년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목포·나주 등 시 지역과 화순·담양·장성 등 광주 근교권 학교에는 나이 든 교사가 많았고, 완도·신안·해남 등 섬과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젊은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정년을 10년 정도 남긴 50세 이상 고령 교사의 비율은 화순이 전체 교원 336명 가운데 176명으로 52.3%를 차지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담양(46.3%)·함평(46.0%)·목포(45.5%)·나주(4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화순은 50세 이상 교원이 전남도내 평균 비율(39.0%)보다 13.3%포인트나 높았으며 광주에서 출퇴근이 쉬운 담양·장성·영암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이들 지역의 35세 미만 교사 비율은 화순이 11.3%로 10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나주(13.5%)·담양(16.5%) 등도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교사 경력 10년 안팎인 35세 미만 교사 비율은 섬 학교가 많은 완도가 52.1%로 가장 높았으며, 해남(47.5%)·신안(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50세 이상 교원의 배치율은 완도 27.2%를 비롯한 신안 23.7% 등으로 교사 10명당 2~3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고령 교사가 많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운동회 때 만국기 등을 설치할 교사가 없어 학부모의 도움을 받는가 하면,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같은 연령별 교원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신규교사의 광주 근교권 배치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올해 신규교사 283명 중 담양 등 도시 근교권에 배치된 교사는 5명에 불과하다.

교원의 연령별 편중 현상은 근무평점 등 성적순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현 인사제도 때문이다. 점수를 많이 확보한 고참 교사들에게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다보니 여건이 좋은 도시 및 도시 근교로 이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남지역 초등교원은 22개 시·군 437개교에 8천580명이며, 35세 미만 교원은 2천411명(28.1%), 50세 이상 교원은 3천335명(39.0%)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야생 출산 확인

암·수 1마리 씩 … 몸무게 1~1.5kg 건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이 낳은 새끼는 지난해 2마리(1마리 사망)를 포함해 모두 4마리로 늘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는 암컷과 수컷 1마리씩이고, 몸무게는 1.0~1.5kg로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미 곰은 지난해 바위굴에서 동면을 시작해 지난 1월 초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달 초 몸에 부착된 전파 발신기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출산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측은 지난해 5~7월 어미 곰이 수컷과 함께 생활한 이후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

현재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새끼들을 포함해 모두 19마리로, 공단 측은 앞으로 개체군 규모를 50마리 이상으로 늘려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집단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반달가슴곰들이 혹독한 야생환경을 극복하고 자연에서의 짝짓기와 겨울철 동면을 거쳐 새끼를 잇달아 출산한 것은 복원 사업이 성공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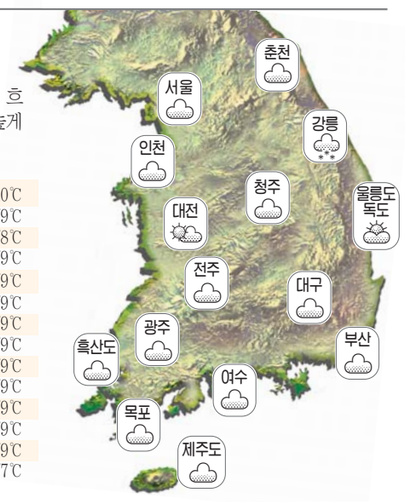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4분 해짐 18시 34분 달뜸 01시 56분 달짐 11시 37분

넘실대는 파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다.

광 주	흐림	3/10℃
목 포	흐림	2/9℃
여 수	흐림	3/8℃
완 도	흐림	3/9℃
구 례	흐림	2/9℃
해 남	흐림	2/9℃
장 흥	흐림	2/9℃
고 흥	흐림	1/9℃
순 천	흐림	2/9℃
영 광	흐림	1/9℃
진 도	흐림	2/9℃
전 주	흐림	1/9℃
남 원	흐림	-1/9℃
흑산도	흐림	4/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3.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7:54 19:31	00:00 13:37
여수	02:44 14:06	09:17 20: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일)
날 씨						
최저/최고	3/6	-2/4	-2/9	4/15	5/16	6/15

2012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

고2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태스크포스(TF)팀이 이런 방안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지난 4일 입시전형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며 "충실한 전형이 이뤄질 수 있게 추가 모집 기간은 정시모집처럼 최소 6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천 수달 보호대책 추진

광주시는 최근 광주천 중류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광주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19㎞ 구간에 대해 보호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광주천에서의 서식상황을 보호관찰하는 등 야생동물서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조심성이 많은 수달의 특성상 서식권역과 행동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먹이주기, 돌멩이 투척, 야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형간염 환자 급증 … 일제 예방접종

젊은층을 중심으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감염 취약층을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7일 "집단면역 수준 향상을 위해 영유아 44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A형간염 감염 취약자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A형간염 전파와 감염에 민감한 20~30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50만명, A형간염 항체형성률이 낮은 고교 1년생 68만명, 20~30대 가운데 기초수급권자 등 접종을 실시할 대상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종 대상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백신접종에 따른 예산안을 협의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꽃샘추위…10·11일 영하 '뚝'

주 후반부터 풀릴 듯

한 주 내내 흩뿌리던 가랑비 뒤를 따라 봄고개를 넘기에는 너무 일렀을까?

3월 둘째 주 광주·전남은 반짝 꽃샘 추위가 심술을 부리다가 주 후반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7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3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7~1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9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전날과 같은 3도를 기록한 뒤 10일, 11일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예상된다.

12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낮 기온도 15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